

새로 나온 詩集

아니리

金光圭 지음

「문학과 지성」을 통해 등단한 이래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아니다 그렇지 않다」 「크낙산의 마음」 「좁팽이처럼」 등의 시집을 발표하면서 ‘오늘의 작가상’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시인의 제5시집.

시인 특유의 쉽고 가식없는 언어와 “일상적 진실을 되짚는” 소박하고 친근한 내용의 시편들을 통해 건강한 상상인으로서의 자기성찰과 현실비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제시 연작을 비롯해 총 64편을 6부로 나누어 묶었다.

문학과지성사/B6신/118면/2500원

해 뜨는 검은 땅

박영희 지음

1985년 「民意」 3집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시인이 첫시집 「조카의 하늘」 이후 3년만에 펴낸 두번째 시집.

열다섯살에 집을 나와 공장과 노가다판, 그리고 광산촌 사복에서 주간 신문의 기자로 살아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마디 마디에서 일궈낸 시 72편이 수록돼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그려낸 민중의 삶과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아픔과 분노, 희망적 의지를 담고 있다.

창작과비평사/B6신/144면/2500원

안 보이는 너의 손바닥 위에

李太洙 지음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자유시」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그림자의 그늘」 「우울한 飛翔의 꿈」 「물 속의 푸른 방」 등의 시집을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제4시집.

현대인의 무기력하고 일상적인 생활의 결핍을 충족시켜 줄 대안으로서의 정신적 회귀의 대상 ‘그’를 찾아가는 도정을 보여주는 62편의 시들을 5부로 나누어 묶었다. 권말에 시인 황동규씨의 해설을 함께 수록했다.

문학과지성사/B6신/132면/2500원

서울 세노야

곽재구 지음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사평역에서」가 당선, 이후 주목받은 시인으로 평가받은 시인의 제4시집. 폭력적 현실, 부정된 정치현실을 다루면서도 분노와 저항에만 머물지 않고 아름다운 서정으로 승화시키는 나름의 시적 방법론이 눈길을 끈다.

28 출판저널

“폭력과 불의를 증오하면서도 현실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길 가운데 하나”를 보여준다는 것이 평론가 김주연씨의 평.

문학과지성사/B6신/118면/2500원

分界線의 흰비둘기

朴沃求 지음

동인지 「詩와 詩論」을 통해 문단활동을 시작, 시집 「極地の 版圖」를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신작시집.

‘분계선’ ‘철책’ ‘이정표’ ‘흰비둘기’ 등의 이미지를 통해 통일에의 염원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동양적 자연귀의사상에 바탕한 따뜻한 인간애를 회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녹슨 철조망 빛바랜 이정표’ ‘피고 지는 연정의 꽃들’ ‘불나비가 맴도는 영시’ ‘그리운 농동자’ ‘타령 산조’의 5부로 나누어 73편의 시편들을 수록했다.

교육사/A5신/196면/4500원

낙동강

朴顯瑞 지음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꾸준한 작품발표와 함께 일본현대시 번역작업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의 제4시집.

‘움직이는 자연’으로서의 강을 시적 매개물로 하여 ‘변화’와 ‘지속’이라는 삶의 두 측면을 다양하게 묘사한 「낙동강」 연작 46편을 모았다. 권말에 시인 자신의 시론과 평론가 구모통씨의 해설을 함께 수록했다.

문학세계사/B6신/104면/2400원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

최성수 지음

1987년 「민중시」 3집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시인의 첫시집.

“두고 온, 못다 가르친 나의 아이들에게 오늘이 약한 말들로 사랑을 전한다”고 서문에 적고 있듯, 참교육 실현을 열망하다 해직된 교사이기도 한 시인의 삶의 철학과 아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진하게 배어있다. ‘사랑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두 축으로 그의 시를 해석하고 있는 평론가 권순경씨의 발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실천문학/B6신/118면/2300원

그대에게 가는 길처럼

송종규 지음

89년 「심상」으로 등단한 시인의 첫시집.

생활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감성을 놓치지 않고 포착한 여류시인의 시적 성찰이 돋보이는 67편의 시들을 5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단 한 마디의 기도 같은, 그런 시를 쓰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 절망하고 꿈꾸고 끊임없이 회의했다”는 것이 작가의 말.

권말에 시인 강우식씨의 해설 ‘절망, 상상력의 확산’도 함께 수록.

동지/B6신/112면/2300원

하얀 감꽃이 피던 날

李相玉 지음

「시문학」을 통해 문단에 데뷔한 젊은 시인의 첫시집.

추악한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는 순결성의 세계, 그리고 인간이 자아내는 세속적 삶을 초월해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세계라는 세 층위를 서사적 구조를 통해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는 독특한 시세계를 보여준다. 시인 김수복씨의 해설과 함께 총 64편의 시들을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시문학사/B6신/102면/2500원

방아깨비의 꿈

文忠誠 지음

첫시집 「제주바다」 이후 「수평선을 바라보며」 「섬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 「내 손금에서 자라나는 무지개」 등의 시집을 펴내면서 정력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의 신작시집.

“때로 돌맹이 들고 도둑고양이 쏘는 것을 만나지만/돌맹이에 맞는 것은 죄없는/내 유년의 도둑고양이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도둑고양이’ 중)와 같이 시인의 유년기 체험이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좌절의 기억들과 얽히면서 드러나는 현실과 이상과의 간극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학과지성사/B6신/146면/2500원

일상의 찬미

신찬식 지음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의 제3시집. 초기시에서 보여주었던 치열한 현장인식 대신 중년의 나이에 체득한 넉넉한 품성과 평범한 일상에 대한 포용력을 드러내고 있는 이번 시집은 「일상의 찬미」 연작을 비롯, 주변과 시대상황에 대한 문화비평의식을 담은 「부끄러움에 대하여」 연작 등 50편을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초기의 베트남 관련 시편들도 함께 수록, 시인의 변모를 엿볼 수 있다.

문학세계사/B6신/114면/2400원

사랑의 진실이 필 때

안중원 지음

「밝은 빛만 바라보고」 「그 옛날 고향에 서서」 등 2권의 시집을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제3시집.

詩歷 20년째를 맞는 시인의 다양한 시적 관심을 엿볼 수 있는 74편의 시들을 4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아내에 대한 사랑의 시편들을 비롯해 자질한 일상적 풍경에 대한 시인의 애정을 담은 서정시가 눈에 띈다. 참신한 묘사나 기교보다는 삶의 그윽한 향기를 정갈하게 그려내고 있다.

꿈과문학/B6신/144면/2500원

이제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II

김춘식 지음

89년 첫시집 「이제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I」을 내면서 문단에 데뷔한 시인의 제2시집.

“사랑아,/끊임없는 사랑이여/화려한 영광은 아니지만/사랑의 결론으로/저는 살아야 할랍니다”와 같이 사랑이란 주조음을 짚어주고 있는 총 69편의 시들을 한데 묶었다.

“읽는 사람에게 짜릿한 공감을 획득하기까지 더욱 힘찬 공을 들이”라는 것이 시인 박재삼씨의 서문.

이슬/B6신/116면/2000원

영혼의 닷

金相煥 지음

81년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한 시인이 데뷔 9년만에 내놓은 첫시집.

총 56편의 시들을 5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세상에 흩어진 버림받고 소외된 온갖 것들에 대한 연민의 시편들을 선보이고 있다.

“탄탄한 시적 구조에 바탕하여 절실하고 진실한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시인 권석창씨의 평.

동지/B6신/128면/2300원

도시의 고양이들

朴景利 지음

「토지」의 작가로 유명한 박경리씨의 두번째 시집.

원숙한 한 인간의 깊은 내면적 성찰이 돋보이는 시편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도시의 아파트단지에서 모여드는 고양이들을 소재로 생명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표제시를 비롯해 작가로서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과 그 극복과정이 절절하게 그려져 있다.

동광/B6신/130면/2500원